

전남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총력전'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100개 농산물·가공품 홍보 광주 신세계백화점 '전남 로컬푸드직매장'도 문 열어

친환경농업의 메카 전남도가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21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2022'에서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 150여개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지자체, 업체 등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전남에선 (사)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비롯한 18개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와 업체가 막바지 홍보전을 펼쳤다.

행사 기간 중 (사)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기농업'을 주제로 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유기농 쌀 야채수, 블루베리 등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함께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

을 적극 알렸다.

전남 홍보관은 22개로 유자 등 도내 친환경 농산물과 복숭아칩, 속떡 등 가공식품 100여개 품목을 전시 홍보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전남도는 매년 박람회에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군을 통해 참가 단체와 업체를 모집, 홍보부스 입차료와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도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도내 농가의 소득향상을 이끄는 '전남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했다.

이번 개장을 기념해 유기농 양파, 표고버섯 등 농산물 '1+1행사'와 함께 7일까지 선착순 방문 고객 100명 대상 친환경쌀 1kg 증정, 입점 기념 떡 증정 등 다양한 구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2020년 광주 대인동에 전남 로컬푸드



전남도가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끄는 판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21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2022' 행사장에 설치된 전남도 홍보관, 광주 신세계백화점 내 개장한 '전남 로컬푸드직매장' 전경.



전남도가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끄는 판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21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2022' 행사장에 설치된 전남도 홍보관, 광주 신세계백화점 내 개장한 '전남 로컬푸드직매장' 전경.

직매장을 개장한 이후 광주권에 진출하는 두 번째 매장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로컬푸드직매장은 2020년 5월 전남도와 (주)신세계가 우수농수특산물 생산·공급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협약의 결과물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선 광주 신세

계백화점은 연간 매출액이 7천600억원에 달하는 로컬푸드 판매 최적지다. 다년간 직매장 운영으로 판매 비결을 가진 화순 도곡농협이 공모 끝에 위탁 운영을 맡아 성공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전남에서 생산한 엽채류, 과일류 등 신선한 농산물과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화훼류 등 1천여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다. 도시민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내 농가에는 농산물 판로 확보로 소득 증대에 보탬을 줄 전망이다. 현재 전남에는 총 63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총 613억원의 매출을 올려 농업인 소득 향상에 힘

이 되고 있다. 강하춘 농식품유통과장은 "직매장 개장을 계기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전남 로컬푸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직매장의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혁신적 광주 관광콘텐츠 기업 찾는다

市, 관광스타트업 공모전...4개 분야 10개사 선정

광주시와 (재)광주관광재단이 혁신적 지역 관광콘텐츠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 장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광주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지난 3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 선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00억원(국비 50억원·시비 50억원)을 투입해 지역 관광기업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사업 시행 첫 해로 광주와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해 스마트 관광플랫폼·콘텐츠 등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관광 관련 아이디어나 사업화 모델을 보유해 직접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관광스타트업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 상생 전통 관광기업 ▲지역 혁신 관광벤처·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기술 관광기업 ▲예비 관광스타트업 등 4개 분야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경기자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관광스타트업 기업에는 최대 6천5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혜택을 우선 제공한다.

신청서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광주관광재단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9월19일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관광기업의 지역특화 관광 사업화모델 발굴을 꾸준히 지원해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품점도시 광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경기자

道-공공기관·시민단체 '청렴문화 확산' 박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부패공익신고제도 홍보 캠페인

전남도가 지역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일 목포역에서 부패공익신고제도 홍보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남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지난 5월 2022년 청렴 실천 공동 이행과제로 '청렴문화 확산 공동 홍보활동 강화'를 선정하고 벌인 이날 청렴캠페인은 민관협의회 차원의 청렴 홍보활동에 비중을 뒀다.

특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전남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속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도민들에게 부패공익신고제도 리플릿과 청렴부채 배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의지를 전달했다.

2018년 발족한 '전남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청렴성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사회단체 등 사회 각 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렴 민관협력조직

(거버넌스)으로 전남도내 22개 기관·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목포대학교, 목포YWCA,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시가 참여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기관 간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무소속 의정연구단 건의안 채택...단속유예 15분·과태료 4만원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무소속 기초의원들로 구성된 '무소속 의정연구단'이 건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건'을 광주시와 각 구청이 채택,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

이다. 7일 무소속 의정연구단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주관으로 열린 5개 구청 교통지도와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의정연구단이 건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건'이 통과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건'은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에서 15분 이내로 늘리고 평일 단속 시간은 하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휴일도 단속을 유예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12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광주시는 단속 완화 건 시행 방침을 각 구청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고 각 구는 자체 논의 후 조만간 시행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승희기자

전남도, 하반기 취약층 700명 취업 지원

전남도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 43억원을 들여 190개 사업장, 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추진한 지역공동체 일자

리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취업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게 생계안정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지역 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등 4개 유형별로 추진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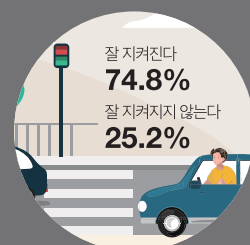
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금(시급 9천160원)과 주휴·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군별로 모집 기간과 운영 시기가 달라 사업 참여를 원활 경우 시·군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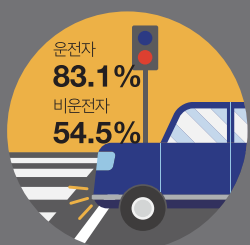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전남도는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8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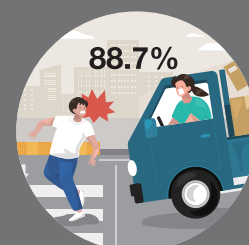
보행자, 도로 위 멈춤신호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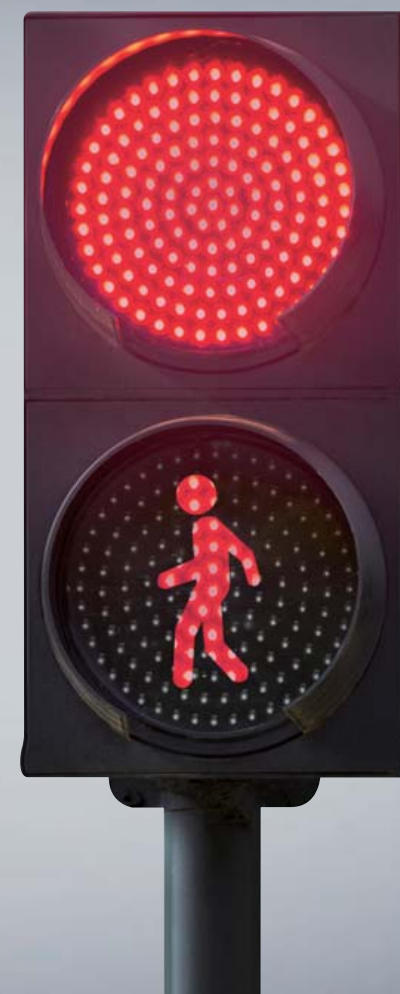


운전자 여부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 정도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미양보 비율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 조사(2020년 12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보행자'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먼저 배려해주세요.